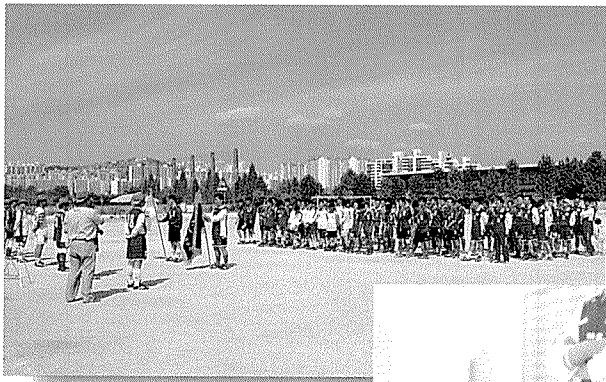


# 제2회 쌍용 · 거손배 제과동호인 축구대회

## 8개팀 참가 예선 리그전 ... 동그라미회 2연패

제 2회 제과동호인 축구대회가 올 3월에 있었던 1회 대회에 이어 지난 9월 26일 떡섬체육공원에서 열렸다. 지난 대회 참가팀인 6개 팀에 천동과 나폴레옹 2개 팀이 새로 가세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동그라미가 대회 2연패를 차지한 것을 비롯, 우심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취재 / 오형석 ohs@mbakery.co.kr〉



▲ 개최식 장면. 이번 대회부터 등장한 대회를 앞에 두고 약 100여명의 선수단들이 페어플레이를 다짐하고 있다.



▲ 천동팀과 동부지회팀간의 예선전 경기 장면. 이번 대회는 천동팀과 나폴레옹팀이 새로 참가해 모두 8개팀이 치열한 예선전을 거쳤다.



◀ 전반경기가 끝난 후 휴식시간의 한 풍경. 이번 대회는 참가 선수들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업계 종사자들 전체의 축제로 이어질만한 토대를 닦았다는 평이다.

제과인들의 동호인모임 성격으로 진행되어온 축구대회가 2회 대회를 거치면서 완전히 자리잡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상쾌한 가을 날씨 속에서 개최된 제2회 쌍용 · 거손배 제과동호인 축구대회는 천동팀과 나폴레옹팀이 새로 참가함으로써 모두 8개팀이 그동안 틈틈이 쌓은 기량을 겨뤘다. AB 2개조로 나눠 오전에 예선 경기를 거친 가운데 각 조 1,2위 팀간의 결승리그를 치르는 동안 운동장 곳곳에서 친목과 화합의 풍경들이 펼쳐졌다. 오후 늦게 폐막된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대회 우승팀이었던 동그라미팀이 우심회를 1:0으로 누르고 대회 2연패를 차지하는 것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에 앞서 벌어진 3·4위전에서는 한우물팀이 동그라미를 승부차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4:2로 이기고 3위에 입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대회보다 대회 진행이 상당히 매끄러워졌다는 점이 우선 눈에 띄었다. 특히, 각 팀 회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회원들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운동장에 뿌려지는 땀방울 하나 하나는 단순한 땀이 아니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어렵게 모인 가운데 펼쳐내는 팀워크는, 그것이 세련된 것이었던, 미숙한 것이었던 간에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격려와 박수를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이 대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선수들은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결과와는 대회 참가자들의 뉘앙스는 아닐 것이다. 대회 규정을 마련하고 힘써 준 실무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보다 성숙하고 진지한 대회가 계속 이어져 제과인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제'가 되기를 기원한다.

### ■ 참가 선수단

- A조 우심회, 한우물회, 일지회, 나폴레옹
- B조 동그라미회, 동부지회, 엠마, 천동

### ■ 입상 및 개인상

- \*우승 : 동그라미회
- \*준우승 : 우심회
- \*최우수선수 : 한마석 (동그라미회)
- \*최다득점상 : 이종광(우심회)



**동그라미회**

1993년 선후배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자 만들어졌다. 그 계기는 회원 대부분이 축구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다는 점에서 축구모임으로 이어지게 됐다. 현재 정회원 36명이 선후배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틈틈이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대회 우승팀인 만큼 깨끗한 매너로 대회 2연패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동부지회**

힘든 일을 하면서 얻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기 위해 축구공 하나를 정점으로 모임이 이루어졌다. 운동을 통해 회원들간의 친목과 삶의 비전을 서로 공유한다.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일에 대한 성실한 자세가 이끌어 가는 것으로 믿고 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운동 모임이 삶의 활력을 전해준다. 우승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무엇보다 깨끗한 플레이를 펼치겠다.



**엠마**

케이하우스 엠마 각 지점 공장장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다. 창단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월 2회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다. 만나서 운동을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동시에 건강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기술정보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개인의 기술발전에도 더 없이 좋은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열심히 뛰여 후회 없는 경기를 하겠다.



**천동**

운동을 좋아하는 선후배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다. 팀 이름처럼 활력소가 되는 모임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회원들이 바쁜 와중에도 매주 수요일 창동운동장에서 모여 정기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첫 출전인 만큼 참가의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창당한 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패기 있게 플레이를 펼칠 것을 다짐한다.



**우심회**

창단한 지 15년쯤 흘렀다. 초기 창단 멤버가 현재까지 거의 변함없이 이르고 있을 정도로 회원들간의 친목이 두텁다. 회원들은 주로 30대로 구성되어 있다. 모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우정과 화합을 모임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고 있다. 평소 일에 치져 스트레스를 풀 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들의 꾸준한 참석으로 즐겁게 운동하고 있다. 목표는 우승이다.



**한우물회**

창단 6년 된 팀으로 각 지역의 현직 공장장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선후배로 구성돼 있어 틈틈이 만나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앞으로 더 나은 기술의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제과업계 발전의 주춧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팀 이름에 나타나 있다.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다.



**일지회**

창단 4년째가 되는 업계 선후배로 구성된 팀이다. 지난 대회까지 단심회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에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대회에 임하겠다. 선후배들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기에 축구는 더 없이 좋은 운동이다. 회원들 스스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매주 1회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 각오로 대회에 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나폴레옹**

나폴레옹 지점의 직원들이 축구를 통해 선후배들이 친목과 화합을 이룬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서도 팀워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기모임을 통해 틈틈이 연마한 기술을 페어플레이를 통해 펼쳐 보이겠다. 이번 대회는 처음 출전하는 것인만큼 젊은 패기로 경기에 임할 예정이다.